



정신장애 캐릭터 주인공 전성시대

‘겐사’ ‘피노키오’ ‘나쁜녀석들’ 등
현대인 불안한 정서 캐릭터 반영

‘정신병’ 캐릭터도 주인공이 되는 시대다. 과거엔 약역이나 단역에 그쳤던 정신질환자 캐릭터들이 이제는 드라마 전면에 시청자들의 눈을 끌고 있다.

현재 수목극 시청률 1위인 SBS ‘겐잡아, 사랑이야’는 정신질환을 가진 주인공들을 내세워 현대인들의 삶과 사랑을 이야기한다. 극중 조인성은 트라우마(정신적 외상)에 시달리며 강박증을 앓고 있는 가진 소설가들, 공효진은 성적 공포심에 시달리는 정신과 의사 캐릭터를 연기 중이다. 이광수도 신경장애의 일종인 투렛증후군(틱 장애)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앞서 방송한 SBS ‘별에서 온 그대’에서는 신성록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소시오패스를 연기했고, 케이블채널 tvN ‘갑동이’의 이준과 김인기 등이 사이코패스를 연기해 화제를 모았다.

뒤이어 11월 방송을 시작하는 SBS 수목드라마 ‘피노키오’ 여주인공은 거짓말을 하면 땀꼭질을 하고 진실을 말하면 땀꼭질이 맺는 피노키오증후군을 앓고 있다. 내년 1월 방송예정인 MBC ‘킬미힐미’도 일곱 개의 인격을 가진 남자와 그의 비밀 주치의가 된 레지던트 1년차 여의사의 힐링 로맨스를 그린다.

두 드라마 모두 2013년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2012년 ‘해를 품은 달’로 ‘대박’을 쳤던 박해진 작가와 진수완 작가가 나란히 차기작에서 정신장애를 가진 주인공을 내세웠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또 10월4일부터 방송하는 케이블채널 OCN ‘나쁜녀석들’에서도 박해진이 똑똑한 두뇌로 천재소리를 듣지만 사이코패스 기질을 숨긴 연쇄 살인범을 연기할 예정이다.

그동안 극의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한 소재의 하나로 사용됐거나 주인공에 맞서는 조연에 지나지 않았던 이들 캐릭터가 극을 이끄는 주인공이 되는 현상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다.

김영섭 SBS 드라마 국장은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한다.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대인들 대부분이 정신적인 불안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시선과 편견을 깨야한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자주 들여다보면서 치유하고 힐링을 얻는 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장군, 1000억 대기록이 보입니다

‘명량’ 신기록 행진 그 끝은?

역대 최단 1000만 관객 돌파 이어
한국영화 최초 1000억 매출 기대
1300만 관객 돌파면 대기록 가능

최민식 주연의 ‘명량’이 한국영화로는 사상 처음 ‘1000억 매출’에 도전한다. 개봉 첫 날부터 매일 신기록을 세워오다 10일에는 개봉 12일 만에 ‘최단기간 1000만 관객 돌파’까지 이른 ‘명량’이 또 하나의 기록을 만들지 관심이 집중된다. 1000억 매출 달성 가능성은 높다. ‘명량’은 그동안 최단 1000만 관객을 보유한 ‘괴물’과 ‘도둑들’(22일)의 기록을

12일이나 앞당겼다. 예매율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상영 2주차 주말이 끝나는 10일 오후 3시 현재 61%를 지키고 있다.

높은 예매율은 향후 흥행을 점치는 근거다. 하지만 이례적이고도 경이적인 흥행을 잇는 ‘명량’을 두고 영화계에서는 최종 기록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선 1500만 흥행을 내다보는 상황이다. 하지만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비교 대상이 없어 흥행 추이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예측 난항’으로 최종 흥행기록은 쉽게 점칠 수 없지만, ‘매출’ 측면으로 본다면 ‘명량’은 곧 또 하나의 신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 ‘첫 1000억 매출’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1000만 관객을 넘은 한국영화는 ‘명량’까지 합해 총 10편. 하지만 매출액 1000억원을 넘긴 영화는 한 편도 없다. 한국영화 흥행 1위인 ‘도둑들’(1298만 명)의 매출은 총 936억 원. 국내 개봉작 중 유일하게 ‘아바타’(1330만 명)가 1248억원의 매출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10일 현재 ‘명량’의 매출액은 800억 원. 찾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흥행 열풍에 힘입어 이르면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는 14일부터 17일 사이에 1000억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시기 ‘명량’의 누적관객 1300만 돌파도 점쳐지고 있다. 역대 흥행 1위인 ‘아바타’ 기록 역시 뛰어넘는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트위터@madeinhenry



개봉 후 거의 매일 흥행신기록을 세운 ‘명량’은 이제 한국영화 사상 첫 ‘1000억 매출’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제공 | CJ엔터테인먼트

박보검·오타니 료헤이·진구 ‘미친 존재감’

‘명량’ 1000만 관객 함께 만들어



‘명량’의 조연 3인방 오타니 료헤이, 진구, 박보검. (왼쪽부터)

최민식 혼자로는 불가능했다. 영화 ‘명량’의 1000만 흥행을 도운 조연 3인이 주목받고 있다. 비중은 적지만 적재적소에 포진한 박보검과 오타니 료헤이, 그리고 진구다.

신예 박보검은 ‘명량’ 출연전 중 가장 어려웠다. 그런데도 경력 많은 배우들 틈에서 위촉되지 않고, 주인공 최민식과 믿음을 쌓아가는 모습에선 진한 감동을 안긴다. 연출자 김한민 감독이 “눈빛이 좋아 캐스팅했다”던 확신이 스크린에서 증명된 셈이다.

일본인 연기자 오타니 료헤이의 활약도 눈에 띈다. 이중첩자로 나선 그는 실제 일본인이란 상황을 심본 살려 극적 긴장을 불러넣는다. 이순신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려는 모습은 ‘명량’이 내세운 61년 해전 장면이 지루하지 않은 하나의 이유다.

단역도 마다지 않은 진구의 도전도 흥행을 도왔다. 적진을 살피는 탐방관 역의 그는 서너 장면에 등장할 뿐이지만 앞서 출연한 여느 영화들보다 강렬한 존재감을 보인다. 이름이 알려진 배우들이 비중적인 역할을 맡을 때 흔히 택하는 ‘특별출연’ 타이틀도 거부했다. 주연욕심을 버려, 더 큰 기회를 만난 셈이다.

이해리 기자

연예뉴스 스테이션

‘한번만 더’ 박성신, 8일 사망…평소 심장 안 좋아



‘한번만 더’의 가수 박성신(사진)이 8일 지병으로 자택에서 사망했다. 향년 45세. 박성신은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에 빈소가 마련됐다. 10일 오전 7시 발인 후 충북 진천 선산에 영면했다. 박성신은 ‘산 너머 남촌에는’의 가수 박재란의 딸로 1998년 제9회 강변가요제에 ‘비 오는 오후’로 출전해 가수로 데뷔했고, 1990년 발표한 ‘한번만 더’로 사랑받았다. 유족으로는 목사인 남편 임인성 씨가 있다.

JYJ, 잠실 공연 3만여 관객 운집…아시아투어 돌입

그들 JYJ가 9일 서울 잠실동 올림픽주경기장에서 3만 여 관객을 불러 모으며 아시아투어 ‘더 리턴 오브 더 킹’을 화려하게 시작했다. 이날 공연에서 JYJ는 ‘비 더 원’ ‘바보 보이’ 등의 곡을 소화했고 3년 만에 발표한 새 음반 ‘저스트 어스’ 타이틀곡 ‘백 시트’의 무대도 꾸렸다. 멤버 김준수는 SNS를 통해 “행복한 꿈을 꾸 기분”이라고 공연 소감을 밝혔다. JYJ는 TV 음악프로그램 출연이 없어도 음악방송 1위에 오르는 저력도 과시했다. ‘백 시트’는 10일 SBS ‘생방송 인기가요’ 1위 후보에 올랐다. JYJ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홍콩, 상하이 등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8개 도시 투어에 나선다.

류승완 감독 등 영화인들 ‘세월호 단식 농성’ 동참

가수 김장훈에 이어 영화인들도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중인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에 합류했다. 류승완 정지영 장준환 등 영화감독과 심재명 강혜정 등 영화제작자 등 20여명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영화인모임(가칭)을 만들고 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벌인 후 릴레이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영화인 모임은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릴레이 단식을 벌일 예정이다.

박건형, 11세 연하 여자친구와 10월20일 결혼



연기자 박건형(37·사진)이 10월20일 2년간 교제한 11살 연하의 여자친구와 결혼한다. 소속사 나무엑트스에 따르면 박건형과 예비 신부는 2012년에 처음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2년여의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했다. 예비신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예식은 양가 친지를 배려해 비공개로 올릴 예정이다. 사회 및 주례, 축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건형은 최근 MBC ‘일밤-진짜 사나이’에서 여자친구와 교제 중인 사실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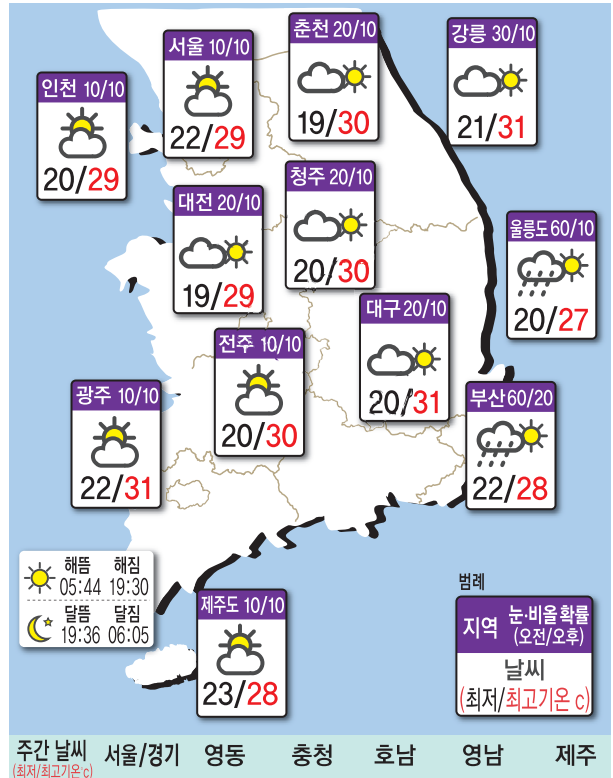
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벌금 200만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연기자 성현아가 8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성현아가 A씨의 알선에 따라 사업가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8개월간 검찰과 공방을 펼쳐왔다.

편집 | 유진한 기자 haja1787@donga.com·고창일 기자 ico@donga.com

오늘의 날씨

8월 11일 목요일 (음력 7월 16일)



주간 날씨 (내일·내일) 서울/경기 23/31 20/31 21/30 21/30 20/31 23/29 12일(화) 23/31 20/31 21/30 23/29 22/31 24/30 24/29 13일(수) 24/31 21/30 23/29 22/31 24/30 24/29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발행인	송대근	대표전화	02 2020 0114	구독신청 1588 2020
인쇄인	최명호	편집부	02 2020 1032	FAX 02 2020 1015
편집인	이승준	스포츠1부	02 2020 1044	www.sportsdonga.com
편집국장	양성동	스포츠2부	02 2020 1041	(주)110-715 서울특별시 중구구 청계천로 1
광고국장	이승욱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74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생활경제부	02 2020 1062	2008년 3월 24일 창간
		사진부	02 2020 1068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시청자 기만 자막 논란

현지인 이름, 유명 축구스타로 오기
KBS “외주사, 제작금지 조치” 사과

KBS 1TV 여행 다큐멘터리 ‘걸어서 세계 속으로’(사진)가 일반인 출연자들에게 유명 축구선수 이름을 임의로 붙이는 황당한 일을 벌여 시청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9일 방송된 ‘교황 방한 기념 특별기획-천국으로 가는 열쇠, 로마·바티칸 편’에 등장한 이탈리아 시민이나 관광객들의 이름이 모두 유명 축구선수들의 이름과 똑같은 데 대해 시청자들이 의혹을 제기했다. 바티칸 공보 담당으로 소개된 안드레아 피를로, 호수에서 만난 현지인은 잔부이지 부폰, 교황 여름 별장 관리자는 지오르조키오 키엘리니, 길을 걷다가 마주친 관광객은 모르나 데 산치스 등으로 소개됐다. 이밖에 니콜라 레그로탈리에, 다니엘레 갈로라 등의 축구선수 이름도 등장했다.

안드레아 피를로 등 앞선 3명은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 소속이고, 모르나 데 산치스는 AS로마 소속 골키퍼다. 이에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 등에는 대중을 기만하려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KBS는



10일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합형진 교양문화국장 명의의 사과문을 프로그램 온라인 게시판에 게재했다. 합 국장은 “외주 제작사에 경위를 파악한 결과, 담당 PD가 현지 취재 중 인터뷰한 분들의 명단이 담긴 메모지를 분실하고 급히 제작을 하느라 이 같은 사고를 빚게 됐다”면서 “외주제작사는 담당 PD를 즉각 징계조치했고, KBS도 해당 외주제작사에 대해 ‘걸어서 세계 속으로’ 제작금지 조치를 취했다. 또한 프로그램 외주제작자 검수를 소홀히 한 내부 책임자에 대해서 사규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차후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ricky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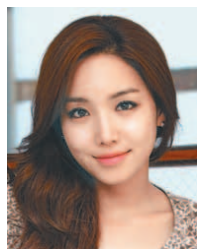
‘왔다! 장보리’ 떴다! 이유리

드라마 3편서 연달아 악역 도맡아
연민정 역 열연…시청률 1위 견인

연기자 이유리(사진)가 악역 세 번으로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2011년 MBC ‘반짝반짝 빛나는’에서 처음 악역을 맡은 이유리는 2012년 방송된 tvN ‘노란복수초’, 현재 출연작 MBC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까지 3년간 3편의 드라마에서 잇달아 악역을 맡으며 ‘악녀’ 이미지를 굳혔다.

특히 출연작 중 가장 강도 높은 악행을 보여주는 ‘왔다! 장보리’에서 이유리는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고아행세하며 친모를 모른 채하고, 자신의 아이까지 몰보지 않는 캐릭터로 대히 시청자에게 거센 비난을 받는다. 그만큼 이유리의 악행이 실감난다는 의미다.

선악이 대립하는 구조의 드라마에서 악역은 선한 캐릭터보다 더욱 큰 존재감



을 발휘하고, 시청자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반짝반짝 빛나는’에서 악역의 긍정효과를 경험한 이유리는 ‘노란복수초’로 기세를 이어갔다. 이복동생에게 빼앗긴 행복을 되찾기 위해 복수심에 불타는 역할을 맡은 그의 악역 연기를 바탕으로 ‘노란복수초’는 케이블 최초 100부작의 아침드라마로서 성공하는데 큰 몫을 했다.

‘왔다! 장보리’에서도 이유리의 열연은 드라마의 인기를 높이고 있다. 9일 23.5%(닐슨코리아)를 기록하며 처음 KBS 2TV ‘참 좋은 시절’을 앞선 ‘왔다! 장보리’는 2012년 주말 밤 9시대 드라마가 생겨난 후 시청률 30%를 달성하는 첫 작품이 될지도 주목된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